



병원행정인신문

Korean College of Hospital Administrators News

발행인 권성탁 / 편집인 임종성
TEL 02)2677-0823~4
FAX 02)2677-0820
(우)072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51-2 병원행정회관 4층

http://www.kcha.or.kr

월간 제138호 | 2016. 6. 10 발행

2016년 병원경영CEO아카데미 · 경영진단사과정 개강 연세대 보건대학원 · 대전과학기술대학교서 각각 2주간 진행



대한병원행정관리협회와 한국병원경영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16년 병원경영CEO아카데미 · 경영진단사 과정이 시작됐다. 제14기 병원경영CEO아카데미 · 경영진단사과정은 서울지역은 지난 5월23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대전지역은 5월 31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에서 개강식을 갖고 21주간의 일정으로 각각 개설됐다. 연수생 40여명이 참석한 서울 개강식에는 권성탁 회장 및 이선희 한국병원경영학회 회장, 강창렬 교육부회장, 이상민 서울시회장, 김인용 교육부위원장, 김충렬 병원경영진단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을지대학교 조우현 총

장의 '병원CEO가 가져야 할 리더십' 특강도 이루어졌다. 본 과정은 매회 2강좌씩 총 63시간을 이수하게 되는데 주입식 강의보다는 의료산업과 의료경영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은 물론 선진 의료경영을 이끌 병원경영CEO로서의 자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

비하고 있다. 특히 2016년도 교과과정에는 병원경영진단사로서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단분석과정을 '경영전략진단' '조직인사진단' '생산성진단' '재무진단' 등 4개 부문의 진단사례중심으로 편성을 강화하고, 이에 적합한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병원경영진단사"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병원경영CEO아카데미과정 수료 후에 병원경영진단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어 보건 의료계 지도자,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원, 공직자와 교수들의 높은 관심을 사고 있다.

협회는 현재까지 330명의 병원경영진단사를 배출, 협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과정과 좋은병원만들기 경영진단사업 등에 병원경영진단사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제24회 NCS기반 병원행정장기연수 사이버교육과정 개강

8월말까지 접수

제24회 병원행정장기연수 사이버교육 과정이 지난 5월 6일(금), 오전 10시를 기해 시작되었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접수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팝업창 또는 공지사항의 장기연수과정안내-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사이버교육과정에는 연세의료원 직원 등 130명의 연수생이 참여했다. 연수생들은 앞으로 22주간, 86시간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국가공인 병원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 할 기회를 갖는다. 교과과정은 의료기초(12), 경영기획(8),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10), 원

무보험관리(16), 재무 및 물적자원관리(8), 마케팅 및 질관리(13), 정보관리(7), 기타관리(4), 특강(4), 기타(4)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버교육과정은 8월말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www.kcha.or.kr)로 등록하면 된다.

중앙회 업무일정 6월 10일 ~ 7월 6일

- 6월
- 10일 대학병원회 학술대회
 - 13일 병원경영CEO아카데미(서울3회)
 - 16일 NCS기반 병원행정장기연수과정 8회
 - 20일 병원경영CEO아카데미(서울4회)
 - 21일 병원경영CEO아카데미(대전3회)
 - 23일 NCS기반 병원행정장기연수과정 9회
 - 27일 병원경영CEO아카데미(서울5회)
 - 28일 병원경영CEO아카데미(대전4회)
 - 30일 NCS기반 병원행정장기연수과정 10회
- 7월
- 4일 병원경영CEO아카데미(서울6회)
 - 5일 병원경영CEO아카데미(대전5회)

고용노동부 지정 원격훈련기관

HUELS

휴엘스아카데미

**고용노동부 사업주 환급교육
재직자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휴엘스가 제시하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나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교육문화가치를 창조하고 구현하는 기업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위탁기관

www.huels.co.kr

휴엘스(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9-2 4층(금호빌딩) T 1644 - 7257 E huels@naver.com 대표이사 양 상 진

대학병원회

2016년도 춘계 병원행정 종합학술대회 개최

대학병원회(회장 윤여용)는 6월 10일(금) 오전 9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1층 임상 제1강의실에서 '춘계 병원행정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의료 환경의 변화, 도전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두 개의 세션에 걸쳐 7개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주제로 ▶2016년 보건 의료정책 방향(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과장)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 전략(배병준 서울의대 이종욱 글로벌의학센터 연구위원) ▶의료 환경 변화와 병원경영의 혁신(이상규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발표됐다.

다음 세션에서는 '도전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병원 행정인의 마음 건강(윤대현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보건의료산업 기술혁신의 미래 전망과 우리의 대응 과제(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기획단장) ▶잘되는 병원의 30가지 비밀(배지수 서울와이즈재활요양병원 원장) ▶병원 원무 관리 혁신 사례(채동근 서울대병원 외래원무과장) 등이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국 듀크대 경영대학원 MBA 이자, 세계적 의료 전문 컨설턴트이면서, 국내 병원 경영 등의 경험을 갖춘 배지수 서울와이즈재활요양병원장(서울의대 졸)의 강의를 비롯해 원무 관리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대병원 사례 등 의료계의 환경 변화와 이에 맞춰 병원 행정 직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한 번에 습득할 수 있는 학술의 장이 되었다.

서울시회

2016년도 2/4분기 정기 이사회 개최



서울시 병원행정관리자회(회장 이상민)는 5월 25일(수), 오후 7시부터 은평연세병원 대강당에서 2016년도 2/4분기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필복 사무국장의 성원보고와 이상민 회장의 개회선언 후 지난 2월 25일 열린 대의원 총회 및 전 이사회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후 '2016년 제22회 체육대회 및 가족축제' 결과 보고를 마친 후 신임 이사의 임명 및 임명장 수여가 있었다. 이번 정기이사회는 서울시회 윤원국

IT 이사가 재직 중이며 신축 개원한 은평연세병원에서 개최되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50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병원행정관리자회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토의가 있었다.

경기북부회

경기북부회 정기모임 개최



경기북부회(회장 최정환)는 지난 5월 16일(월) 경기북부회 정기모임을 개최하였다.

이날 모임에서 최정환 회장과 경기북부회원들은 2016년도 6월에 산행이나 체육대회 행사 개최에 대하여 논의하고, 경기북부의 기존 병원들을 토대로 병원 행정인의 참여를 독려하여 금년도에 50명 회원을 확보하자고 다짐하였다.

군진회

병원행정관리자협회 군진회장 이·취임식



지난 4월 육군 의정병과장으로 취임한 박정하 대령(53세)이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군진회장에 선임됐다. 육군 의정병과장 이·취임식은 4월 29일(금) 서울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거행되었다. 군은 의정병과장이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군진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번에 의정병과장으로 취임한 박정하 대령은 향후 2년간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군진회 대표로 대내, 외 활동을 하게 된다. 박정하 신임 군진회장은 합참, 의무사령부, 군병원장 등 군의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군 의료발전추진이라는 중대한 사업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전문화된 서비스 마인드와 완벽한 업무처리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정하 군진회장은 군장병 건강증진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병원행정,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병원행정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임무수행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병과장교들에게 당부하였다. 한편 육군 의정병과장과 함께 군진회장에서 이임한 이

지철 대령(예비역)은 병원행정과 경영관리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인천 송도에 위치한 국제나사렛병원 경영원장으로 영전해 병원행정 분야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아산병원지회

2016년도 춘계 병원행정 종합학술대회 개최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학병원회 서울아산병원지회에서는 지난 5월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아산병원 소강당에서 정지훈 교수를 초빙하여 '미래 의료와 인공지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2016년 춘계 병원행정인 교양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을 비롯해 간호부, 진료부에서도 참석하여 인공지능 현황과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들었다. 정지훈 교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빼앗아 가기 보다는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강조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현재 근거중심 의학의 한계점을 설명하고, 향후에는 데이터 중심의 의학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했다. 서울아산병원지회 정병헌 회장은 지회 활성화를 위해 회원 지원 사항 및 발전 방향을 회원들에게 설명했다. 병원행정인 교양 포럼은 급변하는 의료계 환경을 둘러싼 변화와 이슈를 회원들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연 2회로 봄, 가을에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회

제24회 인천시회 한마음가족체육대회 개최



인천시회(회장 고현기)는 지난 5월 22일(일), 오전9시 가천대학교 운동장에서 400여 회원 및 가족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24회 한마음가족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체육대회는 오전엔 회원들이 참여하는 축구·족구경기가, 오후에는 회원 및 전 가족이 참여하는 단체 게임으로 구성되어 전 회원 및 가족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고현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평소 병·의원과 병원행정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는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오늘 하루는 회원 가족들과의 하나 된 모습으로 그간의 피로를 해소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함께 풀어요, 의료사고
함께 웃어요, 분쟁해결



의료사고, 싸우지 말고 풀어야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도와드립니다.



www.k-medi.or.kr

의료분쟁 무료상담 1670-2545



권영식이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지난 5월 13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총회에서 우리협회의 추천을 받은 권영식 이사(좌로부터 네번째/연세의료원 조직문화팀장)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영식 이사는 병원인사·노무 분야의 전문가이며 우리협회 이사 등 대외적인 활동을 통하여 병원행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4차 미래발전위원회 개최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바람직한 병원행정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제4차 미래발전위원회가 지난 5월 11일 오후 6시30분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3차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협회 이사회 안건으로 제시하기 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위원장 김재선 미래병원경영컨설팅 대표, 위원에는 김남수 아산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영권 서울대학교병원 원무부장, 김기정 경희의료원 인력관리본부장, 권영식 연세의료원 조직문화팀장, 박종택 가톨릭중앙의료원 기획예산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회원 “환영합니다”

강원도회	김명숙, 원종우, 최우준	서울시회	김연지, 김정태, 김 철, 김형식, 방국빈, 안재현, 오수진, 장문주
경기도남부회	박동훈, 신혜진, 장용근	인천시회	김운영, 박관양, 유영미, 이승섭, 조남현
경기도북부회	김선진	전북도회	송지훈, 심지훈, 한상훈
경남도회	진영공	제주도회	양지혜, 윤창민, 이민영, 전희란, 최은혜
경북도회	차연지		
광주전남도회	이형석		
대전충남도회	김희애, 유찬양, 조인선		

연회비 납부자 (납부기간 : 2016. 5. 1 ~ 2016. 5. 31)

강원도회	김명숙, 원종우, 최우준	부산시회	이세은, 전유경, 한세종
경기도남부회	김아람, 박동훈, 신혜진, 장용근	서울시회	고문정, 김연지, 김정태, 김 철, 김형식, 방국빈, 안재현, 오수진, 장문주
경기도북부회	김선진	인천시회	김운영, 유성권, 유영미
경남도회	박미주, 진영공	전북도회	송지훈, 심지훈, 임현진, 한상훈
경북도회	차연지	제주도회	양지혜, 윤창민, 이민영, 전희란, 최은혜
광주전남도회	이형석		
대구시회	하은정		
대전충남도회	김혜지, 김희애, 유찬양, 조인선		
대학병원회	정용재		

평생회비 납부자



배양수 (정돈요양병원 행정부원장)

社告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협회 홈페이지(www.kcha.or.kr)에서 각종 병원경영정보 및 학술자료, 논문 등 정보이용이 가능하고, 협회보발송, 협회발간도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특별히 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 자격취득자들에게는 위의 서비스 외에 당해 연도 사이버 보수교육(8시간) 무료수강기회가 제공됩니다.

◆ 병원경영 전문서적 회원대상 할인판매 ◆

- ❖ 병원회계 : 13,000원(할인가)
 - ❖ 병원재무관리 : 14,000원
 - ❖ 병원경영분석 : 14,000원 (우송료는 구입자부담)
- 연락처 : 010-2362-9834 (저자 정기선 교수)



협회 발전기금 등 납부 현황

(2016. 5. 1 ~ 2016. 5. 31 현재) (단위 : 원)

광고 찬조 현황			금액	
			2015년	2016년
연	명 예 회 장	이종길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 이사)	2,000,000	0
		김태웅 (분당차병원 행정부원장)	2,000,000	0
	협 회 장	권성택 (연세대학교의료원 사무국장)	4,000,000	0
		강창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	300,000	0
	부 회 장	안병남 (프라임오라 상임교문)	1,000,000	0
		김소양 (부산고려병원 행정원장)	0	1,000,000
	고 문 감 사	정영권 (서울대학교병원 원무부장)	0	1,000,000
		홍성삼 (홍천아산병원 관리부장)	2,000,000	0
	이 사	김남수 (아산재단 경영지원실장)	1,000,000	0
		김영훈 (울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500,000	0
김재선 (미래병원경영컨설팅 대표이사)		500,000	0	
이영식 (강남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1,000,000	0	
정송묵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무국장)		1,000,000	0	
서 울 시 회		회 장 이상민 (신촌연세병원 홍보부장) 사무국장 이필복 (서울적병원 행정부장)	11,000,000	0
대 학 병 원 회		회 장 윤여용 (서울대학교병원 총무부장) 사무국장 심우용 (서울대학교병원 복지파트장)	1,500,000	0
	총남대학교병원지회 회장 서경원 (전문센터지원과장) 충남대학교병원지회 사무국장 신희정 (원무과)	0	500,000	
	부 산 시 회	회 장 박종복 (파크사이드재활병원 행정부장) 사무국장 신형식 (부산고려병원 행정부장)	500,000	1,000,000
대 구 시 회	회 장 이철희 (배성병원 관리이사) 사무국장 박근호 (상세100세요양병원 행정부장)	1,500,000	0	
	대 전 충 남 도 회	회 장 김중현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용주 (국립공주병원 서무과)	800,000	0
광 주 전 남 도 회	회 장 박이순 (동신대부속한방병원 원무부장) 사무국장 김성래 (상무병원 행정국장)	800,000	0	
	인 천 시 회	회 장 고현기 (고려영상의학과 원무부장) 사무국장 이남실 (부평성심병원 원무부장)	500,000	0
울 산 시 회	회 장 이철형 (울산대학교병원 총무팀장) 사무국장 김진수 (사람이소중병원 행정부장)	500,000	0	

광고 찬조 현황			금액	
			2015년	2016년
경 기도 남 부 회	회 장 이선구 (아이엠정형외과 이사) 사무국장 김근배 (한솔정형외과 원무부장)	500,000	0	
	회 장 최정환 (일산복음병원 행정원장) 사무국장 황선목 (하나신경정형외과 원무부장)	500,000	0	
전 북 도 회	회 장 강순현 (원광대학교병원 교육팀장) 사무국장 전천권 (전주예수병원 기획팀계장)	500,000	0	
	회 장 정원택 (포항세명기독병원 총무과장) 사무국장 이수희 (포항여성병원 행정부장)	500,000	0	
경 북 도 회	회 장 김범준 (영산요양병원 이사장) 사무국장 박도완 (삼일정공병원 원무과장)	500,000	0	
	회 장 신광우 (청주성모병원 원무팀장) 사무국장 윤재호 (마이크로병원 원무부장)	500,000	0	
제 주 도 회	회 장 강현삼 (한승진신경외과 사무장) 사무국장 양성재 (제주권역재활병원 총무팀)	500,000	0	
군 진 회	회 장 박정하 (육군 의정병과장) 사무국장 문현주 (국군 의무학교 교육단)	500,000	0	
	회 장 김충렬 (참좋은병원 감사) 사무국장 정문봉 (서울마이크로병원 행정부원장)	500,000	0	
강 원 도 회	회 장 임종진 (강릉아산병원 경영지원실장) 사무국장 김우태 (강릉아산병원 원무팀부장)	500,000	0	
	CEO수강생	박병임 (시원약품(주) 대표이사)	1,000,000	0
목창수 (한불에너지관리(주))		1,000,000	0	
사무처		3,000,000	0	
순천향대학교병원		500,000	0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300,000	300,000	
도서출판 보문각		500,000	0	
한양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0	500,000	
13기 병원경영CEO아카데미 자치회	0	1,000,000		
계			43,200,000	5,300,000

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 문항개발 워크숍

국가공인 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 자격시험 출제위원을 육성·발굴하기 위한 문항개발 워크숍이 4월 22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1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와 관심을 보였으며, 워크숍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강창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1강의 : 문항개발 필요성 및 문항 작성법 (강창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 문항개발 필요성

- 문항 개발 능력 향상, 출제위원의 문항개발 표준안 제시, 교과목별 전문 인력 풀(pool) 구성, 교육에 대한 산학 협력 교류, 자격시험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 배가,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출제경향 제시, 병원행정 분야 NCS 수정, 보완 등

2. 자격시험 7가지 금기 사항 제시

- 타 시험에 출제 불가
- 내용과 형식 강의 금지
- 기고 및 출판금지
- 개인 소장 금지
- 인용한 문제집 개발 금지
- 제3자(동료·조교)에게 의뢰 금지
- 자격시험에 지장을 주는 각종 행위 금지

3. 문항 작성법

- 1) 작성 원칙
 - 너무 어렵거나 쉬운 것은 지양, 과목별 출제기준 준수 등
- 2) 문항줄기(질문을 나타내는 부분) 작성법
 - 중요한 직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주제선정, 가능한 긍정문으로 작성 등
- 3) 답가지(문항줄기에서 적합한 것을 고르도록 나열한 보기) 작성법
 - 부사어의 정답 및 오답 단서 금기 (예)정답: '대개, 간혹' 등, 오답: '절대, 항상' 등

4. 문항 작성 표현, 맞춤법 등

▶ 2강의 : 문항개발 및 문항 작성요령 (이정우 대전대학교 교수)

1. 문항작성 원칙

- 1) 기본원칙
 - 직무 역량과 수행에 적합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문항을 개발
- 2) 출제범위
 -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근거는 과목별 대·중·소 분류 범위로 한정, 가능한 한 균등하게 출제
- 3) 출제근거
 - 당해년도 8월말까지 개정된 객관성 있는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할 것

2. 문항작성 방법

- 문항의 구성, 문항작성 시 유의사항, 문항 점검표

3. 단일 정답형 문항의 이해

- 문항의 형태, A형 문항(제시된 답가지 중 가장 옳은 답을 고르는 것)의 풀기와 활용, A형 문항의 구성

4. 지식수준에 대한 이해

- 암기형 문항(사실의 기억을 측정하는 시험문항), 해석형 문항(사실 해석 및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해결형 문항(단편적 지식 및 판단력과 결정력을 모두 포함하는 문항)

▶ 3강의 : 문항개발 시 유의사항 (강창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 기존 문항개발의 특성

- 문항줄기 : 부정형 문항이 많음, 단순 암기형 문항이 많음
- 답가지 : 부사어 사용으로 오답·정답 짐작 가능, 배열시 일정한 원칙이 없음

2. 문항줄기 개정 사례

- (예)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조립된 것은?
→ 첨삭 :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3. 답가지 개정 사례

- (예) ① 진료과 또는 질환별로 배정된 병상수는 절대 변경하지 않는다.
→ 첨삭 : ① 진료과 또는 질환별로 병상수를 할당(제한) 운영

4. 제언

- 시험응시자를 위해 : 불필요한 반복 문구사용 자제, 문항줄기 및 답가지 간략히 표현, 부정형 문항보다는 긍정형 문항으로 출제, 단순 암기형 보다는 해석형/해결형으로 출제 등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할까요?

TIP
알면 유익한
의료법률상식

재진환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의료법 17조에 따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진료 및 처방 등은 직접진찰이 아니라고 보아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보았으나, 2013.4.11. 선고 2010도1388 판결에서 이와 다른 해석을 하였습니다. 사안에서 의사인 피고인은 이미 1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속칭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 진료만으로 다시 처방전을 발급하였습니다. 검사는 의사인 피고인이 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당해 사건에서 이 조항을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이미 방문하여 진료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전화 진료로도 진료 혹은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 나온 2013.4.26. 선고 2011

도10797 판례에 따르면 진찰료 청구에 있어서 전화 진찰의 경우에도 내원진찰인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상으로는 가능하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원무팀 법무담당

병원혁신디자인 시리즈 <4> “혁신이 사람을 만나다”

‘환자에게 시간은 삶의 소중한 기억이기에 더욱더 가치있게 지켜져야 한다.’

보건 의료정책 보고서

병원을 방문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과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필연적인 상황일 수 밖에 없는가? 병원을 한번이라도 가본 경험이 있다면 예약에서 진료, 검사, 입원, 수술에 이르기까지 진료 프로세스 각 과정의 대기시간으로 지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환자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인가?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시간일 수는 없다. 환자에게 1분 1초는 삶의 소중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생의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이에게 못다한 말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일 수 있기에 그 누구에게도 이 시간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X-RAY 7번 검사실 앞 Before



After

“7번방의 기적, 단순히 습관만 바꾸었을 뿐이다”

‘7번방의 기적’으로 이름 지어진 이 프로젝트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 검사인 X-RAY 촬영시 평균 46분에 달하는 검사이송대기, 검사대기, 복귀이송대기로 인한 환자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없을까? 하는 작은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X-RAY 검사 프로세스는 의사의 검사처방→ 간호사의 환자이송신청→ 이송반의 환자이송(병동→검사실)→ 영상의학팀의 X-RAY 검사→이송반의 병동 복귀 이송으로 이루어진다.

1) Discover

2015년 7,8월 X-RAY 검사시행을 분석한 결과 총 23,982건중 아침 6시와 9시에 14,334건이 비대칭적으로 몰려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진료 프로세스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되어왔으며 간호사와 이송반, 영상의학팀 모두의 업무과중과 환자의 불만을 야기시켜 왔다.

2) Define

검사대기의 주원인은 검사처방 단계에서 부터 시작된다. 모든 의사는 아침 회진시 새벽 X-ray검사 결과를 원하고 간호사는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검사이송신청을 한다. 이송반과 영상의학팀은 한꺼번에 쏠리는 검사에 따른 적정인력과 장비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10년째 풀지 못한 숙제로 가지고 있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특정시간에 X-ray검사가 몰리는데 있으며 검사처방분산과 이송신청분산을 해결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3) Develop

a. 검사처방분산: 우리는 검사처방이 몰리는 이유가 ‘회진’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입원환자의 X-ray 촬영처방이 많은 호흡기내과와 심장내과, 흉부외과 의사의 회진시간을 분석하여 오후 회진의 경우 검사가 몰리는 시간을 피해서 간호사가 검사이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임상과의 협조를 구했다.

b. 이송신청분산: 특정시간에 몰리는 이송신청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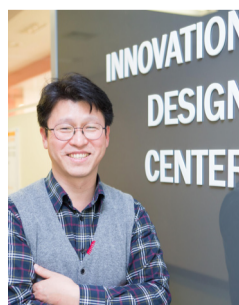
을 찾기위해 10분단위로 통계를 추출한 결과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각 시간대 안에서도 정각과 30분에 이송의 72%가 몰려있는 것이었다. 이는 보통 약속시간을 잡을 때 정각과 30분을 기준하는 일반적인 약속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병동별 검사의 총량을 분석하여 병원 전체적으로 병동별 10분단위로 이송신청시간을 지정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4) Deliver

의사의 검사처방분산을 통해서 10시 이후 검사가 26% 증가하였으며 병동별 10분단위의 검사시간을 지정함으로써 평균 검사대기시간은 46분에서 35분으로 23%가 감소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해결방안으로 인해서 의사, 간호사, 이송반, 영상의학팀 누구의 업무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만 보이지 않았던 습관을 바꿨을 뿐이다.

서울아산병원의 이노베이션 정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마음’이다. 의료진 눈에 비친 기다림(대기)은 어쩔수 없는 당연한 과정일 수 있으나 환자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변화의 대상이다.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서 환자에게 시간이 의미하는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는 디자인 철학을 세우고 이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은 이 프로젝트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의료진의 입장에서 무심코 지나쳐온 시간의 가치를 환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과 추가적인 인력과 자원의 투입 없이도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혁신적인 사례이다.



오성규 관리총괄
(서울아산병원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
opdsk@amc.seoul.kr

외국인환자 30만명시대...진료수입 6,694억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5년 29만7,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5년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은 총 6,694억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했다.

2015년의 경우 메르스 발생, 유가 및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전반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 축소가 우려됐으나, 30만명에 달하는 환자를 유치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100명 이상 유치 국가 수는 2014년 56개국보다 10개국 늘어난 66개국이었으며, 1억원 이상 고액 환자 수는 2015년 271명으로 전년 대비 61명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러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순이었다. 2012년 이후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해온 중국은 작년 한해 환자수가 전년 대비 24.6% 증가해 10만명에 달했다.

한류문화의 영향이 큰 카자흐스탄이 2014년 8,000여명에서 2015년 1만2,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56.5% 증가, 베트남이 3,700여명에서 5,300여명으로 42.6%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큰 UAE 환자는 2014년 2,600여명보다 약 300여명 늘어난 2,900여명을 기록했다. 진료비는 중국인 환자가 가장 많은 2171억원, 이어 러시아 792억원, 미국 745억원, 카자흐스탄 580억원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정부간 환자송출 협약을 맺은 아랍에미리트가 1,50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카자흐스탄 461만원, 러시아 380만원 순이다.

진료과목을 살펴보면 내과가 약 8만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21.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성형외과와 건강검진이 각각 4만명(11.1%), 약 3만명(9.3%)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국적별로 중국인 환자의 24%가 성형외과를, 러시아 환자의 28%, 미국 환자의 23%, UAE 환자의 23%가 내과를, 일본 환자의 28%가 피부과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를 많이 유치한 지역으로는 서울이 55.8%(17만명), 경기도가 19.1%(6만명), 인천이 5.4%(2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59%), 전북(52%), 광주(48%)등 일부 지역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장 서창석 교수 취임

서울대병원장에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 출신인 서창석 산부인과 교수가 임명됐다. 서 원장은 5월 28일 임기가 끝나는 오병희 현 서울대병원장의 뒤를 이어 원장에 취임했다. 서 원장은 서울의대를 졸업, 분당서울대병원 기초실장과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된 바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세브란스 중국 진출기 <2>

연세의료원, 한국 의료 중국 진출 새 모델 제시

글쓰는 순서

1. 세브란스의 역사, 정신 그리고 도전
2. 세브란스, 한국 의료 중국 진출 새 모델 제시
3. 의료인력 교육 통해 세브란스 의료 전수
4. 한중 아시아의 의료허브 '세브란스'

연세의료원은 지난 2012년 중국 이싱시 인민정부 및 중국 건설회사 강소중대지산그룹과 '이싱 세브란스VIP검진센터(가칭)' 합작경영 계약을 체결한 뒤 4년여 동안 이싱세브란스VIP검진센터의 건축, 설계, 운영자문을 수행하였고, 현재 중국 현지 파견 인력 및 위탁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싱세브란스 VIP검진센터 사업을 시작으로, 연세의료원은 지난 3월 22일 중국 신화진그룹과 칭다오세브란스병원 건립과 관련한 합작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합작계약으로 연세의료원과 신화진그룹은 50대 50의 지분으로 참여한 합자모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해당 합자모회사에서 자회사적인 칭다오세브란스병원을 설립하게 된다. 병원은 오는 7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하여 2020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병원 건립 자문과 세브란스 상표 사용권 등 현물을 유상으로 매각해 마련된 현금을, 신화진그룹은 전액 현금을 출자한다. 약 3,000억원이 투입되는 칭다오세브란스병원은 1,000병상 규모로, 세브란스의 우수한 의료 및 운영시스템의 노하우가 도입되고 세브란스병원 본관의 건축적 특징이 반영될 예정이다. 연세의료원은 합자모회사 지분 50%를 확보함에 따라 병원 운영을 통한 배당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 경영에 따른

수수료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칭다오세브란스병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연세의료원과 신화진그룹은 선양과 항저우 등에 중외합자모회사 산하 제2, 제3병원 설립도 계획 중이다. 중국 정부는 2013년 '건강서비스업 발전촉진 계획'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보건 수준을 개도국 상위권으로 올리며 합리적 구조의 헬스케어서비스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은 외국 의료기관의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자본의 유입도 폭넓게 허용했다. 특히 헬스케어산업의 표준을 마련하고 감독관리 제도도 손질했다. 고급 의료인프라 구축, 의료기술력 제고를 위해 의료특구를 지정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하고 나섰다.

연세의료원의 이번 칭다오와 이싱 진출은 변화하는 중국 의료시장에서 한국 의료기관의 브랜드 인지도 확보는 물론 한국의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도를 중국에 전파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해외진출 분야가 그동안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집중되어 있던 한계를 벗어나, 최초의 1,000병상 규모 종합병원 진출 모델로서 급성기나 암, 뇌심혈관 등 중증 및 만성질환에서도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연세의료원뿐만 아니라 한국 의료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재일 연세의료원 발전전략팀장

이용균실장의 병원경영칼럼 <26>

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이용균 (재)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주요 약력>

-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 서울대병원 정책자문위원
- 국방부 의무자문관
- 한국병원경영학회 부회장



최근 병원의 정보기술은 인터넷 시대를 거쳐서 유비쿼터스로 확장되고 있다. 병원의 경영환경이 디지털화되면서 의료정보는 개방형의 플랫폼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유무선 통신망의 결합과 각종 센서 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취득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환자정보의 수집과 통제가 가능해지면서 환자관리의 효율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병원의 '정보획득과 통제'는 병원경영에 순기능을 줄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수반되면서 개인정보의 유출우려로 정부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이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않도록 의료법에서 '환자의 비밀 준수'규정을 두고 있다. 병원에서는 정보처리의 기술발전으로 업무효율성은 향상되었지만 향후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에서 개인의료정보의 보호가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 동안 병원에서 IT환경의 변화로 병원 홍보 및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과 진료안내를 위한 스마트폰 등 모바일 이용은 필수요건이 되었다. 이로 인해서 개인의료정보의 전산화로 편리함도 많아졌지만 정보유출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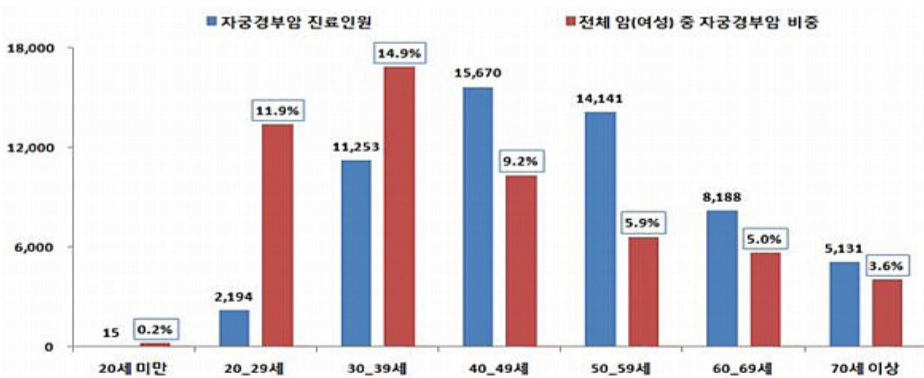
병원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사고는 병원의 전반적인 이미지 훼손을 초래할 수 있어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가 필요하다. 최근 병원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살펴보면, 처방전달 시스템(OCS) 보안시스템의 침투로 인한 해킹사태와 병원의 사내 사이트 해킹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병원의 정보유출 유형은 내부 전산망 침투 및 서버장악 등의 다양화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 전자메일을 통한 병원의 인터넷 웹(Web) 취약점을 이용한 홈페이지 변조 등도 일어나고 있다.

병원시스템이 해킹을 당하거나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PC 속도가 느려지고 비정상적인 종료가 발생하거나, 시스템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화벽 설정 및 웹 서버의 보안을 설치 등 적정투자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병원의 개인정보보호는 보안 시스템의 도입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보유출이 없도록 직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는 정보화 시대를 사는 병원인의 소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병원규모와 상관없이 정보보호 대응체계의 수립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래픽으로 보는 의료계 동향

■ 자궁경부암 진료인원



■ 자궁경부암진료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학탐방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보건의료산업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양성



부산디지털대학교는 2002년 개교 이래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사이버대학으로,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및 졸업 후 관련 공부가 필요한 성인학습자에게 학사학위 및 국가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우수한 4년제 종합대학이다. 부산디지털대학교만의 강점으로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스마트폰 출석 강의시스템 구축, 교육부 원격대학 종합평가 우수대학 선정, 교육부 인가 정규 4년제 대학교로 학사학위, 자격증 취득 및 대학원 진학 가능 등 다양한 교육과정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는 보건의료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2011년 개설된 학과이다. 현재 부산디지털 보건행정학과는 다양한 보건 의료기관과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실습 제공 및 졸업 후 병원 및 보건 의료기관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 의료분야의 첨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론과 다양한 실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 보건행정학과는 병원행정, 보건교육, 보건정책, 의료 관광행정 등의 세부영역과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되어 보건 의료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보건 의료현장에 근무하는 졸업생 및 재



학생들로 구성되어 학생들 상호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상호 유대 및 취업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또한 병원 등 다년간 종사한 실무 교수진들의 우수한 강의와 함께 국가장학, 교내의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에 제공되는 장학금 종류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군위탁, 만학도, 공무원, 직업군인, 공무원, 산학협력기관 등 50개의 장학금제도와 10~50% 정도의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재학생 모두가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만의 교육과정 특징으로는

- 보건교육사 2,3급, 병원행정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위생사 취득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 멘토링 프로그램, 학교생활 및 도우미 제도 학교 생활 및 학습 도우미 제도 도입(1:1학생상담 및 실시간 원격지원)
- 인터넷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전교생 웹하드 무료 제공
- 컴퓨터 활용 미숙한 학생에게 매년 오프라인 컴퓨터 무료 강좌 실시

2016년 아세안 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회원 대학 선정
2014, 2015년 사이버대학 특성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2011년 KERIS 원격대학 특성화 콘텐츠 선정
2010년 KERIS 콘텐츠 품질인증 획득

- 블렌디드 러닝(오프라인 강의 및 모임)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으로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보건분야로 경력을 바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일반인이나, 현직 보건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추어 종합병원급 병원행정전문가, 보건교육관련 실무자, 의료관광 전문가 등의 실무위주의 외래교수를 다수 확보하여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보건교육사,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강 등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입학자격은 신입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및 동등학위 소지자이다. 2학년 편입학 지원자는 전문대학졸업자 및 4년제 대학 졸업 및 졸업 예정자로 3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3학년 편입학은 전문대학졸업자 및 4년제 대학 졸업 및 졸업 예정자로 7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홈페이지 : <http://www.bdu.ac.kr/ha/Main.do>

연락처 : 051)320-2793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진우 교수

병원탐방

공주시 라온요양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의 즐겁고 질 높은 삶을 위해 최선”



충남 공주시 우성면에 2015년 9월 개원한 라온요양병원은 지상 2층 건물에 133병상을 갖추고 있는 요양병원이다.

병원 이름 ‘라온’은 즐거움이란 뜻의 순 우리말이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라온요양병원은 의료와 복지의 종합서비스를 표방하여 고령화에 따른 요양서비스와 노인질환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나눔과 봉사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의료복지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주변의 자연 친화적인 여건 속에 무엇보다 쾌적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취미생활, 미술치료, 종교 활동 등 복지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은 음식에서부터 시작한다. 칼로리만 높고 실속이 없거나, 영양만 맞추고 맛이 없는 음식은 식사가 아니다. 최고의 급식팀이 최상의 재료로 진료 이전에 음식으로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의사 2인, 한의사 1인, 약사 1인,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12명, 의료기사 4명 등 필요한 의료인력을 갖추고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간병사를 배치하여 24시간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환자들의 회복과 입원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진료과목은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양·한방 협진으로 환자들에게 효율적인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 공주의료원이 위치하고 있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라온요양병원은 “즐겁고 질 높은 삶”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더불어 환자와 가족 모두의 즐겁고 질 높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홈페이지 : <http://라온요양병원.kr>

연락처 : 041)852-8575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통천포길 333

(동대리 339)

라온요양병원

글로벌산악회 산행기(26호) 거제 지심도

산과 바다 어우러진 자연휴양림 '지심도'



거제도에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지심도는 약11만 평 넓이의 작은 섬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음 심(心)자를 닮았다고 해서 지심도(只心島)라 불린다.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걷고 싶은 길 17선에 뽑힌 곳이다.

남해안 섬들 중 어느 곳보다 동백나무의 묘목 수가 수량이 압도적이어서 진정한 동백섬이라고도 한다. 12월초부터 4월까지 피고 지는 동백꽃을 감상할 수 있고, 숲으로 들어가면 한낮에도 어두컴컴할 정도다. 그곳에 첫발을 디딘 날은 3월의 끝자락, 비가 부슬부슬한 날이었다. 장승포 유람선 터미널에서 배를 타면 10분 만에 도착한다. 찌푸렸던 하늘이 부슬거리며 비를 뿌린다. 우산도 없고 피할 곳도 없다. 쏟아 붓는 것도 아니어서 지도를 보며 섬을 둘러 봤다. 선착장 근처의 펜션촌을 벗어나면 울창한 동백나무 숲이다. 걷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길만 아니라면 원시림 한 가운

데 있는 느낌이다. 날씨가 좋았으면....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대나무 숲도 아름답다. 숲에 묻혀 두런거리며 조금 걸으니 다시 밝은 곳이다. 일제강점기 전등소 소장의 사택이다. 전형적인 일본 가옥으로 보존이 잘 돼 있다. 다시 숲으로 들어서면 곧 벵커 모양의 시설이 보인다. 역시 일제가 야간 탐조등을 보관하던 서치라이트 보관소다. 지심도 주변의 지역을 표시한 방향지시석이 보인다. 서치라이트를 비추기 위해 8개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5개만 남아있다. 해안선전망대와 망루를 지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안내도는 '그대 발길을 돌리는 곳'이라고 안내한다. 조금 굽어진 빗방울을 피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발길을 돌린다. 가던 길을 되돌아 오다가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야 해맞이 전망대, 국방과학 연구소 근처로 이어진다. 해맞이 전망대는 활주로 역할을 했었는데 '이 짧은 거리에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했을까'하는 의구

심이 들었다. 국방과학연구소 앞에서 왼쪽으로 가면 역시 일제가 설치한 포진지가 나온다. 일본이 중국침략을 2년 앞두고 계획한 것으로 4개의 포대와 탄약고 등이 그대로 남아있다. 1백년 가까이 됐을 텐데 흐트러짐이 없어 보인다.

지심도의 또 다른 끝지점, 마끝 해안절벽으로 발길을 돌린다. 촉촉이 젖은 빗길에 푹푹 떨어진 동백꽃이 밟힌다. 한겨울에 홀로 피는 꽃. 하얀 눈 속에 빨강계 피는 모습을 못 봐서 그런지 아름답거나 예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하얀 비닐우의를 입은 단체 관광객을 피해가며 마끝 해안절벽에 도착했다. 저 만치 고깃배 한 척이 포물선을 그리며 지난다. 우중충한 날씨가 아니라면 더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다. 마끝을 뒤로하고 선착장에 이르는 길에 시간이 남아 파전을 한 장 시켰다. 부슬거리는 빗속에 고소한 파전이 입맛을 돋운다.

지심도 여행은 천천히 걸어도 두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가족, 연인과 함께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미중 <순천향대 서울병원 홍보팀장>

여행 Tip

지심도를 가려면 거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장승포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내린다. 바로 옆이 지심도 터미널이다. 장승포에서 두 시간 간격으로 배를 운항한다. 여름철 성수기와 토, 일, 공휴일에는 증회 운항한다. 단체 관광객이 많아 미리 예약 하면 더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다. 문의 055-681-6007 지심도 도선협회

문화재를 찾아서 국보 제109호

군위 아미타여래삼존석굴



평소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찰 가운데 특별히 석가탄신일에만 문을 여는 곳이 몇몇 있다. 대부분 경북지방에 있는데 문경 봉암사, 영천 은해사 백흥암 등이 그곳이고 경주석굴암도 이날은 유리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팔공산 자락 북쪽인 군위군 부계면에 있는 삼존석굴도 비슷하다. 문화재보호를 위해 계단을 막아두어 아래 먼 곳에서 배관할 수밖에 없는데, 이날만큼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국보 제109호인 이 문화재의 공식명칭은 군위아미타여래삼존석굴이지만 대개 제2석굴암이라고 불리고, 군위삼존석굴이라는 명칭도 흔히 쓰인다. '제2석굴암'이란 이름은 '석굴암'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경주석굴암에 뒤이어 두 번째로 알려진 석굴사원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석굴암에 버금간다는 자부심이 오히려 많이 담겼으리라고 본다. 하

지만 이 석굴사원이 경주 석굴암에 시대적으로 앞서니 꼭 옳은 이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연동굴에 만들어진 통일신라 초기의 이 석굴사원에는 700년경에 만들어진 삼존석불이 모셔져 있는데, 본존불은 2.18m, 왼쪽 보살상은 1.8m, 오른쪽 보살상은 1.92m이다. 가운데 본존불은 사각형의 대좌 위에 양발을 무릎 위에 올리고 발바닥이 위로 향한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다. 손모양은 오른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손가락이 땅을 향한 항마촉지인인데, 우리나라 불상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예로써 의의가 크다. 본존 좌우 협시보살들은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삼곡자세, 삼면보관, 뚜렷한 삼도, 목걸이, 발목까지 드리워진 군의자락, 대좌와 그 위에 놓인 두 발 등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이곳에는 유례를 찾기 힘든 특이한 모습을 한 모전석탑과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있는데, 역시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봉암사와 백흥암은 백중(음력 7월 15일)에도 산문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니, 이번에 기회를 놓친 분들은 이날 찾아봐도 좋을 것이다.

이계재 <김안과병원 홍보실장/편집위원>

가로세로 낱/말/풀/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21	

- 이 름 :
- 소속 및 직책 :
- 전 화 :
- 주 소 :

<지번호 당첨자> 김재관

식	구		동	물	원		당
용		민	요		피	로	연
유	망	주		주	스		지
		주	지	의		발	사
	상	의		보	자	기	
죽	하		침				어
	수	용	성		운		버
효	도		대	중	전		이

정답을 찾아 7월 1일(금)까지 협회로 보내주세요
보내실곳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51-2 병원행정회관 4층

* 당첨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가로열쇠

1. 학생이 일정한 양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배달되는 문제지.
3.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곳.
5.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아서 널리 퍼짐. 또는 그런 사회적 동조 현상이나 경향.
6. 병원 안의 건물 한 채 한 채를 이르는 말.
8. 남북 분단 따위의 사정으로 이리저리 흩어져서 서로 소식을 모르는 가족.
10.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남의 머리털을 깎아 다듬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12. 성적이 우수한 학생.
14.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윗대의 열사.
16.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 대해, 또는 그런 의식.
18. 시력이 나쁜 눈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나 바람, 먼지, 강한 햇빛 따위를 막기 위하여 눈에 쓰는 물건.
20. 가장 잘하는 재주.
21.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는 사내.

세로열쇠

1. 학생 신분으로 군대에 들어간 병사. 또는 그 군대.
2. 꼭 집어서 가리킴.
3. 비행 중인 항공기 따위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안전하게 땅 위에 내리도록 하는 데 쓰는 기구.
4.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
5.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
7. 예전에, 중국에서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으로 동쪽에 사는 민족을 낮잡아 이르던 말. 한국, 일본, 만주 등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8.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김.
9. 거리의 조명이나 교통의 안전, 또는 미관 따위를 위하여 길가를 따라 설치해 놓은 등.
11. 발을 한 번 떼어 놓는 걸음을 세는 단위.
12. 나눔과 못함.
13. 심상하고 힘찬 기운.
14. 경찰 공무원 계급의 하나. 경장의 아랫니다.
15. 회전축에 붙은 날개를 전동기로 돌려 바람을 일으키는 장치.
17.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한 잡된 귀신의 하나. 비정한 힘과 재주를 가지고 있어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짓궂은 장난이나 심술 같은 짓을 많이 한다고 한다.
18. 술을 마실 때에 곁들여 먹는 음식.
19. 땅속에 묻은 수도관이나 하수관, 배선 따위를 검사하거나 수리 또는 청소하기 위하여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든 구멍.